

| 활동 개요 |

대상

개발 의도

학습 목표

내용 체계

차시

장소

준비물

흐름도

근로자(사무실)

- 그린드레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알리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임은 물론, 본인의 건강과 옷맵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본다.
- 계절에 맞는 복장과 친환경적 소재로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린드레스 운동은 개인의 참여는 물론 공동의 참여로 인해 에너지 절감과 편리성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 그린드레스의 용어에 대해 안다.
- 쿨맵시와 온맵시의 다양한 아이템을 알고, 옷맵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코디법을 안다.

기후변화의 대응 : 기후변화 완화 및 경감, 적응을 위한 개인적 노력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차시										★	

10차시/12차시

소요시간

2시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실 혹은 회사 내 강당

지도자용

학습자용

선발대회 평가표(활동자료 1), 다양한 그린드레스 옷 아이템, 필기구

도입
(20분)

- 그린드레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 쿨맵시에 대해 알아보기
 - 온맵시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70분)

- 그린드레스 모델 선발대회 개최하기
 - 쿨맵시 혹은 온맵시 모델 선발대회 진행하기

마무리
(30분)

- 그린드레스 모델 선발대회 평가하고 심사하기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20분)

(1) 그린드레스코드에 대해 안다. [참고자료 1~3]

- 에코패션 / 쿨맵시 / 온맵시

[유의사항] 그린드레스코드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불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전개(70분)

(1) 그린드레스모델 선발대회 패션쇼를 준비한다.

① 친환경 소재의 패션아이템을 모듈별로 나누어 갖고, 모델 모듈원을 선정하여 멋지게 꾸며, 패션쇼를 한다.

② [참고자료 1~3]을 참고하여 에코패션을 창의적으로 꾸며본다.

[유의사항] 계절을 고려하여, 온맵시 혹은 쿨맵시 선발대회를 선택한다. 다양한 아이템이 많을수록 다양한 패션쇼를 할 수 있다. 경쟁보다는 유쾌한 시간이 되도록 유도한다.

(2) 각 모듈의 모델이 나와 워킹을 하고, 각 모듈 대표가 공정하게 심사한다.

[유의사항] 패션, 실용성, 친환경소재, 창의성 등 다양한 항목이 균등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장기자랑, 포즈를 취해 보고, 자신의 패션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3. 마무리(30분)

(1) 그린드레스모델 선발대회의 심사결과를 총합하여 1등, 2등, 3등을 선발하고, 각 모델마다 심사평을 알려준다.

[유의사항] 각 모듈별로 돋보인 점을 위주로 심사한다.

(2) 그린드레스모델 선발대회에 참가 소감을 모델 입장에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말해 본다.

[유의사항] 앞으로 그린드레스를 권장하기 위한 인식의 문제와 개인의 참여보다는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지시켜주고, 앞으로 그린드레스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그린드레스 모델 선발 평가표

그린드레스 모델 선발대회 평가표

참가팀명 : _____ 채점자 : _____

항목	평가의견	배점	점수
옷맵시			
실용성			
친환경 소재			
창의성			
워킹			
포즈			
취지			
총평		총점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패션이 자연을 입다"

먹을거리에 대한 위험 수위가 도를 넘으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사수하고자 시작된 친환경 운동이 살림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식품, 자동차, 화장품, 이제는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트렌드를 넘어 또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특히 패션 업체에 부는 친환경 바람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एको(Eco)’, ‘그린(Green)’ 등으로 명명한 환경 캠페인 마케팅으로 이어져 명실상부한 업계 주요 코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를 입는 ‘एको 패션(Eco-Fashion)’은 국내외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과 대형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중소 섬유 업체들이 종이섬유, 오가닉 코튼, 비염색 면화 등 다양한 아이템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패션은 크게 환경피해를 줄이는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하는 ‘유기농 패션’과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아 환경피해를 줄이는 ‘재활용 패션’으로 나눈다.

■ 대나무와 콩을 입는 ‘유기농 패션’

패션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유기농 제품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오가닉(Organic) 라인’을 선보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오가닉 면은 일반 면과는 달리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면과 더불어 이제는 삼베, 대나무, 닥나무, 콩, 옥수수, 녹차, 알로에, 참숯 등 다양한 천연섬유 소재들이 새롭게 ‘오가닉 라인’을 형성하며, 에코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린(Green) 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영역은 유아복 업체와 이너웨어 업체다. 최근 유아복 업체 이에프이의 ‘압소바’는 친환경 오가닉 제품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했다. 3년 이상 합성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면화를 사용해 만든 배넛저고리, 손싸개 내의 등은 물론 기저귀, 속싸개 등과 같은 출산용품까지 다양한 오가닉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보령메디앙스 ‘쇼콜라’의 친환경 제품도 눈에 띈다. 허브, 비타민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과 함께 쇼콜라는 해조류를 접목해 개발한 이불, 요, 베개, 싸게보낭 등의 침구류까지 출시했다. 이와 같은 에코 럭셔리 제품의 확대를 통해 쇼콜라는 15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친환경 제품이 호황을 누리자 ‘아가방’도 최근 은행잎에서 추출한 ‘내추럴 바이오’ 물질을 사용해 섬유 내 세균과 곰팡이 생성 억제 기능을 선보였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고자 이너웨어 업계에서도 오가닉 열풍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보디가드’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알로에 가공 속옷과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은행 항균 속옷을 내놓았고, 알레르기 및 민감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오가닉 스토리’ 제품도 판매 중이다. ‘비비안’ 역시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텐셀’ 섬유로 여성용 러닝셔츠를, 너도밤나무 섬유 ‘모달’을 이용한 남성용 사각팬티를 출시해 업계 내 꾸준한 성장세를 띠고 있다. 그 밖에 ‘트라이엠프’ ‘비너스’ ‘비와이씨’ 등에서도 참숯, 키토산, 알로에, 황토, 콩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며, ‘오가닉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이처럼 유아복과 이너웨어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 패션 전략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블루오션적인 남성복 브랜드들도 앞다퉈 친환경 패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친환경 패션의 시장 내 파급력이 점차 커져 감에 따라 저가에도 유행주기도 짧은 철 지나면 버려지기 일쑤인 패스트패션 브랜드도 그린 패션 시장으로의 합류를 시도하고 나섰다. 패스트패션의 대표주자인 ‘H&M’은 유기농 코튼으로 제작한 터키산 티셔츠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인도산 유기농 코튼 티셔츠를 선보이며, 그린 패션 시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라’ ‘겍’ ‘유니클로’ 등과 같은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차례로 오가닉 라인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린 패션 시장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 버려진 천 조각도 다시 보는 ‘재활용 패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자는 의도로 버려진 옷, 패브릭을 재활용하거나 석유화학물의 찌꺼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재, 패션으로 순환시키는 이른바 ‘재활용 패션’. 이 역시 유기농 패션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환경의식과 책임감이 결부되어 파생된 친환경 패션 경향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적으로 재활용 패션이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재활용 패션의 선두 브랜드인 ‘파타고니아’는 1974년 미국에서 등산복, 스키복, 요트복 등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로 시작했다. ‘자연을 보호해야만 아웃도어 스포츠도 계속될 수 있다’는 친환경 논리로 파타고니아는 패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폴리에스테르 의류제품을 만들고 있다. 패트병을 재활용하면 일반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뽑아 옷을 만드는 것보다 석유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

스위스의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은 1993년 재활용 패션의 첫 선을 보였다. 화물차 덮개용으로 쓰다가 폐품처리 된 두꺼운 천막이를 가방 몸체로 재활용, 자전거 바퀴의 튜브 고무는 가방 힘받이로, 차량용 안전벨트는 가방끈으로 재탄생 시켰다. 프라이탁은 재활용 가방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는 지갑, 축구공, 샌드백 등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다.



지금은 뉴욕 패션계의 유명 브랜드로고가 드레스를 내놓고있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시작한 재활용 패션이었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디자이너 ‘타라 섹코프’는 2000년대 초반 각종 빈티지숍에서 구입한 중고의류를 리폼해 뉴욕 컬렉션 무대에 등장,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바 있다. 최근엔 한국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대니 서’를 동료로 맞아 에코패션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패션이 이처럼 전세계 패션계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해 2월 국내에서도 최초의 재활용 브랜드인 ‘에코파티 메아리’가 문을 열었다. 폐품들을 모아 새로운 공정을 통해 각종 패션잡화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 메아리는 재활용자선가게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된 중고의류를 원단으로 사용한다.

‘구매가 곧 자선’이라는 슬로건 하에 메아리는 재활용 패션을 디자인하면서도 철과 같은 부자재 사용을 피하기 위해 지퍼나 버튼 대신 여밈 형식으로 마감처리를 한다. 뿐만 아니라 활자를 인쇄하는데 합성 잉크가 아닌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접착제 생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포장의 마감처리를 실로 꿰매는 등 친환경 패션문화를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재활용 패션이 점차 국내 패션 시장의 새로운 장르로 도약하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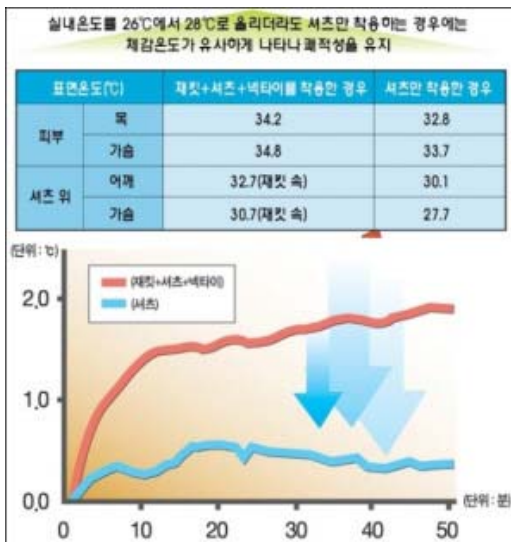
출처 : eco-fresh
(<http://ecofresh.tistory.com/category/%ED%99%98%EA%B2%BD%20%EC%A3%BC%EC%9A%94%EB%89%B4%EC%8A%A4?page=22>)

[참고자료 2] 쿨맵시

○ 쿨맵시

쿨맵시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영어 'Cool'과 옷을 차려입은 모양새·스타일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를 합친 말로, 여름철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서도 격식을 지킬 수 있는 시원하고 멋스러운 비즈니스 옷차림이다. 여름철 직장에서 재킷을 입지 않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 편안한 차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를 1~2℃ 낮출 수 있고, 이로써 냉방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기체를 줄여 지구온난화도 예방하고, 건강도 증진하는 친환경 패션이다.

○ 왜 쿨맵시로 바뀌야 하나요?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시 직장인의 근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무직 직장인 한사람이 근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가 연간 3,857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무로 발생하는 온실기체 중에서 34%는 난방, 28%는 출퇴근, 20%는 냉방에 따른 순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기체가 50% 이상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냉난방을 1~2℃ 정도만 줄여도 온실기체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출처 : 그린스타트 블로그,
<http://blog.daum.net/fresh-air/527>

○ 쿨맵시로 멋내는 법

- 쿨맵시 복장이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노타이 차림과 같이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다. 시원하면서도 비즈니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착장법! 에너지 측면에서 재킷, 셔츠, 넥타이를 모두 착용한 경우와 셔츠만 착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목부위 의복 내 체감온도 변화는 약 2℃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타이 및 간소복 차림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 높인다면, 연간 160~290만톤의 CO₂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약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노타이로 세련되게

- 팔을 걷을 수 있는 롱업 셔츠
- 재킷 뒷주머니에 포켓치프



셔츠로 격식있게

- 반소매 셔츠
- 목깃이 높은 셔츠
- 칼라 끝에 단추가 있는 버튼다운 셔츠



기능성 소재로 시원하게

- 가벼운 소재
- 통기성 소재
- 냉감 소재

○ 쿨맵시로 멋내는 법

- 남성 비즈니스 캐주얼

재킷 안에 셔츠나 니트류는 반드시 칼라(깃)가 있는 것을 선택해 깔끔하면서도 격식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재킷의 색상을 고려해 유사색상으로 코디하면 가장 무난하며 줄무늬나 체크무늬의 셔츠도 적합하다. 넥타이를 하지 않는 대신 재킷 뒷주머니에 포켓치프를 꽂아 멋스러우면서도 격식 있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도 좋다.

바지는 면바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여름철에는 청량감 등을 고려해 쿨 소재의 바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회색, 갈색, 베이지 등의 색상은 어떤 재킷과 코디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며, 다양한 코디가 가능해 유용하다.



- 셔츠

노타이용 셔츠는 패턴이 강한 셔츠보다 연한 파스텔 톤이 맵시가 난다. 진한 색의 줄무늬, 바둑판 무늬보다는 옷감의 질감을 이용해 자연스런 질감을 보여주는 패턴을 권장한다. 칼라(깃), 소매의 색사이 전체 색상과 산뜻한 매력을 보여 줄 수 있

다. 노타이용 셔츠를 고르면 타이 없이도 완벽한 v존이 완성된다. 목부분이 일반 셔츠보다 0.5cm~1.0cm 높은데요, 목과 가슴연결 심지를 2중으로 보강하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뒷 깃이 길어 타이 없이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한다. 또한 목밴드와 첫 단추의 간격이 일반 셔츠보다 넓다.

- 여성 비즈니스 의상

짧은 소매상의나 민소매를 이용해 스타일링 할 수 있다. 편안한 짧은 소매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매치하거나 민소매 블라우스나 탑, 원피스 등을 이용하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쿨맵시 복장이 완성된다.



출처 : 그린스타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greenstartkr?Redirect=Log&logNo=90063952060>



[참고자료 3] 온맵시

○ 온맵시

온맵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溫)’과 옷을 차려입은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를 합친 단어이다. 즉, 온맵시는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을 통해 사무실이나 실내의 난방온도를 낮춤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막는 현명한 겨울나기 스타일이다.

○ 온맵시, 왜 필요할까요?

- 과도한 난방은 건강의 적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에 옷을 적게 입고 난방을 과도하는 경우, 실내가 건조해지고, 실내·외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눈이나 호흡기, 피부 등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추위에 대한 적응력을 UP!

실내·외의 온도차가 너무 크면 장기적으로 인체의 체온 조절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창 자라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추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 난방에너지 비용과 지구온난화가 심각

갈수록 사람들이 더 따뜻한 실내온도를 원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될 경우 난방에 소비하는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온맵시 착용비법



- 피부쪽과 몸 바깥쪽에 따라 다른 소재를 착용

피부 쪽은 부드럽고 얇으며 흡수성이 우수한 소재, 중간층에는 겹쳐 입으므로 동작이 편하며 보온성,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 최외층은 방풍, 방수, 투습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팔다리 보다는 머리와 몸통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보온효과가 증가하므로 옷을 너무 많이 끼입지 않아도 된다.

- 너무 달라붙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게

너무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옷이 정지공기층을 갖게 되어 따뜻하다. 다만 너무 헐렁하면 옷 속에서 공기의 이동이 발생하여 공기가 정지상태가 되지 못하고, 열 손실이 증가하므로 보온에 불리하다.

- 적당한 조임으로 찬 공기는 OUT

옷 내부의 공기를 정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매나 발목, 허리띠 등을 조이는 것이 좋고, 특히 상의의 경우 터틀 넥라인, 하이 넥라인, 밴드 칼라, 리본 칼라 등이 좋다.

- 땀 배출로 옷은 보송보송하게!

몸에서는 항상 수증기 상태의 땀이 나오는데 이것이 옷에 응축되거나, 활동으로 땀이 나서 옷이 젖을 경우 보온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수시로 개구부나 조임을 열어주어 환기를 통해 땀을 배출시켜야 한다.

- 외부의 방해에도 꿈쩍하지 않게

외부로부터의 비, 눈, 바람을 차단하여 정지공기 상태로, 또한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그린스타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greenstartkr?Redirect=Log&logNo=90103308001>

○ 온맵시 아이템



- 내복

내복이나 속옷은 피부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몸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내복이 아니라면 얇은 옷이라도 속에 받쳐 입는 것이 좋다. 내복은 피부의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데 표피세포, 피지, 땀 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때는 하루 6~12g 정도 나오며 그 중 피지가 2g이다. 이 피지가 옷에 묻으면 차츰 산화해 노랗게 변하고 옷을 망가뜨리므로 피지 분비가 많은 겨울철에는 내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조끼

조끼는 단조로운 옷차림에 활력을 불어넣어 분위기는 따뜻하게, 입은 사람은 더욱 맵시 있게 보이게 한다. 추울 때는 머리와 몸통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온하며, 따뜻해진 체열이 팔다리로 전달되면 효과적인데, 조끼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 형태이다. 특히 솜이나 패딩을 넣은 후드 형태의 조끼가 더 따뜻하다.



- 카디건/스웨터

카디건과 스웨터는 속에 반쳐 입은 블라우스나 셔츠 일부분이 드러나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어 아름답게 보이며, 착용자를 센스 있게 또는 지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온맵시를 살리기에 좋다. 이때 셔츠나 블라우스 넥라인에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치하면 한층 멋스러움이 증가하며 상대방의 시선을 얼굴 주변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카디건은 일교차가 클 때 패션과 보온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필수 온맵시로, 지퍼 형태로 된 카디건의 경우 지퍼를 끝까지 올리거나 단추를 끝까지 채우는 것만으로 보온성이 증가한다. 스웨터나 카디건에 후드가 붙어있는 형태는 착용감이 편하고 보온성이 뛰어나 추운 겨울에 더욱 어울린다.

- 재킷/점퍼

사무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얇으면서도 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재킷과 점퍼도 좋은 온맵시 아이템이다. 재킷과 점퍼는 약간 넉넉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속에 입은 카디건이나 스웨터가 밖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게 열어 입는다면 당신은 패셔니스타!!



○ 온맵시 보조용품



- 암워머&넥워머 등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워머, 착용하는 부위에 따라 넥워머, 암워머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온성과 착용감이 뛰어나며, 특히 대세인 ‘스마트폰’을 위해 워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장갑을 낀 채로 스마트폰을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가락 부분이 자유로운 워머가 인기인 것이다.

- 발열정장

스스로 열을 내는 남성용 정장이 출시돼 큰 화제가 되었다. 일명 ‘발열수트’, ‘웜프레시(Warm Fresh)’라는 열을 자체적으로 발산해 떨어진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섬유소재를 사용한 발열수트, 겨울철 체감 온도를 약 3도 가량 높여준다고 한다.



- 그 외의 아이템

발열내복, 발열조끼, 발열슬리퍼 등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memo

